

Rio+20의 주요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정지원 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연구위원 (jjung@kiep.go.kr, Tel: 3460-1182)

박수경 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skpark@kiep.go.kr, Tel: 3460-1074)

차 례 ● ● ●

1. 배경
2.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의 역사
3. Rio+20의 주요 결과
4. 시사점

주요 내용 ● ● ●

- ▶ 2012년 6월 20~22일에 걸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제3차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이른바 ‘Rio+20’가 개최되었음.
 - 1992년 리우 정상회의 이후 20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였음.
- ▶ Rio+20 회의는 향후 최대 10년간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이정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바, 이번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는 데 그 한계와 도전과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조 및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음.
- ▶ 그러나 현재 국제사회가 처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유로존 위기 상황으로 인해 20년 전 ‘리오 선언문’과 ‘의제(Agenda) 21’과 같은 역사적 선언문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하였음.
 - 빈곤해소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제시되었던 녹색경제의 개념에 대해 개도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였으며, 환경 분야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EU가 제안한 환경전문기구 창설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
- ▶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른바 SDGs 도입에 합의한 것으로 SDGs는 새천년개발목표(MDG) 달성시한인 2015년 이후 개발 프레임워크의 토대가 될 것임.
 - MDG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빈곤해소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를 가려내고 부문별 목표와 지표설정 작업을 2013년까지 완료할 예정임.
- ▶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지원규모를 확대할 것임을 공약한바, 이와 더불어 내실 있는 지원 프로그램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과거 환경보전과 조화를 추구한 경제개발 경험과 최근 녹색성장정책 추진 경험을 콘텐츠로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지원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ODA 사업 전반에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우리의 지원사업이 기후변화에 대응능력(climate-resilient)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

1. 배경

- 2012년 6월 20~22일에 걸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제3차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이하, Rio+20)’가 개최되었음.
- 이 회의는 1992년 리우 회의 이후 지속가능발전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적, 체계적 이행을 위해 ‘빈곤해소와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의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를 주요 의제로 설정함.
 - 빈곤해소와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의 녹색경제(green economy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빈곤해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녹색경제 정책을 국제적으로 확산, 정착시킬 수 있는 협력방안 모색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institu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난 20년간의 전 세계 지속가능발전 이행현황에 대한 평가 및 이의 효율적 증진을 위해 환경 관련 전문기구의 역할 강화 등 국제적 거버넌스 개혁방안
- 1992년 리우 정상회의(UNCED, Earth Summit)를 기점으로 UN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는 10년을 주기로 개최되어 왔음.
- 1992년 리우 회의 이후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세계정상회의(WSSD 또는 Rio+10)가 개최되었으며, 이번 회의는 리우 회의 20주년을 기념하여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음.
- Rio+20 회의는 향후 최대 10년간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이정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는 데 있어 한계와 도전과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조 및 협력의 필요성이 재확인되었음.
- 본고에서는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의 역사와 이번 회의의 주요 결과물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의 역사

- UN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논의는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인간환경회의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10년을 주기로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왔음.

표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요 정상회의

주요 정상회의	시기 및 장소	주제
UN 인간환경회의의 (UNCHE)	1972. 6 스웨덴 스톡홀름	하나뿐인 지구(Only One Planet): 환경과 개발의 통합
UN 환경개발회의 (UNCED)	1992. 6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리우 선언문과 의제 21: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WSSD, Rio+10)	2002. 9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요하네스버그 실행계획(JPOI):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
UN 지속가능발전회의 (UNCSD, Rio+20)	2012. 6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가. 스톡홀름 UN 인간환경회의(1972년)

■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 인간환경회의(UNCHE: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는 환경과 개발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지속되는 시발점이 됨.

- 1960년대 후반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환경에 대한 국제회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스웨덴의 제안에 따라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논의하기 위한 스톡홀름 회의가 개최되었음.

■ 스톡홀름 회의에서는 인류의 경제·산업 활동으로 야기된 환경오염 및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지구적 차원의 협력을 공약하는 스톡홀름 선언문이 채택되었으며, 이는 환경 이슈를 국제적인 의제로 제시하는 계기가 됨.

- 스톡홀름 선언문에 명시된 기본원칙은 각국 환경법의 기본구조와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스톡홀름 선언 외에도 핵무기 실험 금지, 국제 환경 데이터뱅크 구축, 개발과 환경을 위한 조치, 환경 관련 기금 창설, UN 환경프로그램(UNEP) 창설에 관한 5개 결의문이 이 회의에서 채택됨.

■ 스톡홀름 회의는 국제 환경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스톡홀름 선언은 이후 국제환경 논의에서 인간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지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됨.

나. 브룬트란트 보고서(1987년)

■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기·해양 오염,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종 다양성 위기 등의 문제가 심화되었으며, 환경과 개발을 통합하기 위한 스톡홀름 선언은 개도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긴장상태가 지속됨.

- 이러한 배경 아래 UN 총회는 1982년 UN 인간환경회의 10주년을 기념하는 UN 환경개발회의를 개최하고, 1983년 UN 총회의 결의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담당할 독립기관인 '세계환경개발위원회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일명 브룬트란트 위원회¹⁾)'를 설립하였음.

■ 브룬트란트 위원회는 1987년 『Our Common Future(우리 공동의 미래)』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최초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이라는 개념을 제시함.

-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 세대의 필요에 부응하는 발전을 의미함.
- 이 보고서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개발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빈곤해소가 필수적인 요구사항임을 강조함.

■ 스톡홀름 회의가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라는 선언적 성격을 가지는 데 반해, 브룬트란트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합리적 투자, 인간 지향적 기술개발, 사회구조의 발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현재와 미래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동태적인 변화과정으로 해석

- 환경보호와 개발의 핵심은 성장 패턴의 질적인 변화, 식량 · 에너지 · 식수 및 위생 등 기초수요의 충족, 자연자원의 보존과 관리, 경제성장 정책에서 환경의 주류화임.

다. 리우 지구정상회의(1992년)

■ 브룬트란트 위원회는 스톡홀름 회의 이후 20년이 되는 시점에서 두 번째 환경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 컨퍼런스(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개최됨.

- 이 회의는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개최되었으며,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음.
- 지구정상회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과도한 경제활동과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행동 변화를 촉구함.

■ 이 회의에서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이념적 방향을 제시하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문’ 을 채택하고, 이 선언에서 제시한 원칙들을 실천하는 ‘의제(Agenda) 21’ 을 도출함.

- 리우 선언문은 지속가능한 개발은 인간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1원칙으로 명시함.
- 의제 21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각국 차원의 전략수립을 촉구하였음.

1) 세계환경개발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노르웨이 총리 Gro Harlem Brundtland의 이름에서 비롯됨.

클상자 1. 의제 21의 주요 내용

1. 사회경제적 측면
 -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과 관련된 국내 정책
 - 빈곤해소
 - 소비 패턴의 변화
 - 인구학적 역학관계와 지속가능성
 - 인간 보건환경의 보호와 제고
 - 지속가능한 인간 거주환경과 발전
 - 환경과 개발의 통합
2. 개발을 위한 자원의 관리와 보호
 - 대기보호, 토지자원의 계획과 관리, 사막화 방지, 생태계 관리, 지속가능한 농업, 생물다양성 보존, 수자원 보호 등 각 분야별 자원관리 및 보호 관련 주요 이슈와 과제
3. 주요 참여자의 역할 강화
 -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
 - 지속가능한 발전과 아동/청소년 이슈
 - 원주민(indigenous people) 및 소규모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
 - 산업과 기업의 역할 강화
 - 기술의 역할 등
4. 이행수단
 - 재정지원 메커니즘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술이전, 협력 및 역량강화
 - 지속발전을 위한 과학
 - 교육, 인식제고
 -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별 메커니즘과 국제 공조
 - 국제기구, 제도 및 법령 등

자료: Agenda 21, The UN Programme of Action from Rio.

-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설립이 이때 결정되었으며, 3대 환경협약으로 일컬어지는 기후변화·생물다양성·사막화방지 협약이 체결됨.

라. 요하네스버그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2002년)

- 이 회의는 리우 지구정상회의 10주년을 기념하여 의제 21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2002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됨.²⁾
- 요하네스버그 회의는 리우 선언과 의제 21에 구체적인 이행수단이 결여되어 있음을 한계로 인정하고, 빈곤·물·보건위생·친환경 에너지·무역 불균형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구체적 실행방안이 포함된 선언문과 이행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2) 회의의 공식명칭은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WSSD)임.

- 이 회의의 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하네스버그 선언문’과 ‘요하네스버그 실행계획(JPOI: 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이 채택됨.
 - 요하네스버그 선언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환경보전 및 경제·사회 발전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가지며, 빈곤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실천의지를 담고 있음.
- JPOI는 지속가능발전의 3대 축인 경제·환경·사회 분야에서 빈곤해소·보건·무역·교육·과학기술·자연자원·거버넌스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중장기적 우선과제를 제시하고, 국가·지역·국제사회 차원에서 달성해야 할 이행방안을 규정함.
 - JPOI는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빈곤해소, 지속가능하지 못한 소비·생산 패턴의 변화, 자연자원 보전·관리 등 총 152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음.

클상자 2. 요하네스버그 실행계획(JPOI)의 주요 내용

1. 빈곤해소
 - 2015년까지 1일 소득 1달러 미만인 빈곤층 인구나 안전한 식수를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고, 빈곤층 권리부여 프로그램 개발
 - UN 총회가 빈곤해소를 위한 세부 기금조성 방안을 정하도록 하고, 인간·사회발전 권장 및 빈곤해소를 위한 세계연대기금(World Solidarity Fund) 설치
2. 지속가능하지 못한 소비·생산 패턴 변화
 - 지속가능 소비·생산으로의 전환을 위한 10개년 프로그램 수립 권장
 - 기업의 환경성과 개선, 기업과 지역사회 간 대화 촉진 등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임(CSR) 강화
3. 자연자원 보전·관리
 - 생물다양성 협약 이행 및 201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을 저감하기 위한 개도국 대상 재정·기술 지원
 - 지구환경기금(GEF)을 활용한 토지황폐화(사막화, 산림남벌) 방지를 중점 지원
4. 건강과 지속가능발전
 - 2015년까지 5세 이하 어린이 사망률을 2000년 대비 2/3 낮추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아동사망률 격차 해소
 - 청소년 에이즈 환자를 2010년까지 25% 감소
5. 아프리카의 지속가능발전
 -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여건 조성, 평화안정, 민주주의, 거버넌스 구축, 인권 및 자유 존중 등을 위한 아프리카의 자발적인 노력 지원
 - 토지 소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 지원
6. 이행수단
 - 이행수단의 핵심인 재정·무역은 몬테레이 합의문(2002. 3), WTO 도하선언문(2001. 11) 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는 선에서 합의
 - 환경에 부정적이고 지속가능발전과 상충되지 않는 보조금 개혁 권고

자료: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홈페이지(<http://www.un.org/esa>).

3. Rio+20의 주요 결과

- Rio+20 회의 개최를 위해 2010~12년간 세 차례 준비회의(Preparatory Committee)가 열렸으며, 이 밖에도 Rio+20 준비위원회 Bureau 회의, 지역별 협의, UN-개별 국가 간 비공식회의가 수차례 진행되었음.

표 2. Rio+20 준비회의 개요

<p>제1차 준비회의 (2010.5.17~19, 뉴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사무총장보고서(지속가능발전 이행성과 평가, 녹색경제 및 지속가능발전 분석) 검토 ○ 녹색경제를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대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은 녹색경제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필요성 제기 - 개도국은 녹색경제가 ODA의 조건 또는 보호무역주의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하고 녹색경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표명
<p>제2차 준비회의 (2011.3.7~8, 뉴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수단과 행동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 ○ 빈곤해소와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의 녹색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은 지속가능발전 수단으로서 각국의 특성에 맞는 녹색경제정책 수립을 강조 - 개도국은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임을 역설
<p>제3차 준비회의 (2012.5.28~30, 리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경제가 빈곤해소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메커니즘에 관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기존 경제성장 모델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 제기 - 녹색경제가 장기적으로 개도국 및 선진국의 생활 패턴과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력 ○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경제 촉진 패키지, 에너지 효율 제고, 녹색조달 확대, 녹색인프라 구축 등

자료: Rio+20 회의 홈페이지(<http://www.uncsd2012.org>).

- 올해 초부터 개시된 결과문서 초안('Zero Draft')에 대한 협상은 정상회의 직전까지 계속되었으며, 그 결과 총 53쪽의 최종선언문이 채택되었음.
- Rio+20 회의의 결과문서인 'The Future We Want'는 총 5개 장, 283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두에서는 과거 회의의 결과 및 선언문 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적 공약을 재확인하고, 본문에서는 녹색경제, 지속가능발전 관리체계, 행동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음.

가. 녹색경제로의 전환

- 이번 회의에서 녹색경제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는 경제체제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제시되었음.³⁾
- 대부분의 국가들은 녹색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나, 녹색경제로의 전환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임.

3) UNEP은 2008년 '녹색경제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경제성장과 동시에 소득기회 창출,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을 고려하는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강조함. UNEP의 Green Economy Report(2010)에서는 녹색경제를 인간의 웰빙을 추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불평등을 제거함과 동시에 미래 세대에 심각한 환경적 위험 또는 자연자원의 고갈을 야기하지 않는 경제로 정의하고 있음.

- 논의 초기부터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했던 개도국들은 개별 국가의 상황에 맞는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논의의 핵심이 빈곤해소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수단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음.
- EU는 녹색경제의 구체적 목표와 행동계획을 담은 로드맵 채택을 강력하게 지지한 반면, 미국과 캐나다는 국제적 차원으로 목표와 시한이 결정되는 하향식 접근방식에 대해서 반대함.

■ 이번 회의 선언문에는 녹색경제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됨.

- 자연자원에 대한 개별 국가의 주권을 존중해야 하며, 각국의 상황, 목표와 우선순위, 정책추진여건 등을 고려해야 함.
- 개도국의 수요(needs)에 따른 재정지원, 역량구축, 기술이전을 위한 국제협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조건부로 ODA가 제공되어서는 안 됨.
- 녹색경제정책 추진이 국제무역을 저해하거나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음.
- 선진국과 개도국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특히 개도국의 선진국 기술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음.

■ 또한 녹색경제정책 추진 경험 공유 및 네트워킹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정책 추진을 위한 개도국의 수요와 선진국의 지원뿐 아니라 재정-기술-역량강화를 연계하는 UN 내 시스템 구축이 제안됨.

- 이 시스템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고 녹색경제정책 적용을 위한 수단(toolbox)과 모범사례를 제공하며 재정-기술-역량강화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 형성 등에 기여할 것임.

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 지속가능발전 어젠다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UN 시스템 내 조직별 기능 및 공조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경제·사회 개발에 관한 정책 검토 및 대화 주도 기능을 재확인하고, 지속가능발전의 3대 분야, 즉 경제·사회·환경에 대한 균형적인 접근을 위해 ECOSOC 강화에 합의함.
-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를 대체하는 정부간 고위급 포럼을 구성하기로 결정한바, 고위급 포럼은 UN 시스템 내 다양한 지속가능발전 프로그램 간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고 일관성을 제고하는 데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것임.

■ 특히 환경 관련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루졌는데, 이는 지속가능발전의 3대 분야 중 환경 분야가 가장 취약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

- EU는 무역 분야의 WTO와 같은 환경전문기구 창설과 UNCSD를 이사회(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로 승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이에 대해 미국·캐나다·러시아는 기존 기구 강화를 주장하였으며, 일본은 UNCSD의 이사회 승격에 대해 반대하였음.

- 결국 UNEP를 강화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바, UNEP는 글로벌 환경 어젠다를 설정하고 UN 시스템 내 환경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 o 정규재원 및 지정기여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책수립을 위한 인 터페이스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됨.

다.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이행수단

-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물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도입에 합의한 것임.
 - 2000년에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달성기한이 2년 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SDGs는 2015년 이후 장기 개발 프레임워크의 기초가 될 새로운 개발목표라는 의미를 지님.
 - SDGs는 MDG를 대체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분야별 개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실행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임.
- 30개국의 대표로 이루어진 SDGs 수립을 위한 실무작업반이 구성되면 작업반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SDGs의 최종 안(案)을 2013년에 개최되는 제68차 UN 총회(General Assembly)에 제출할 예정임.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수단(means of implementation)으로 재정지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무역이 제시되었으나, 기존 공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수준에 그침.
 - 재정지원의 경우 300억 달러의 지속가능발전기금 설립이 제안되었으나, 선진국의 반대로 논의의 진전은 없었음.
 - o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의 선진국은 Rio+20 회의가 재정공약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반대
 - 개도국의 기술 관련 수요 분석 등을 통해 친환경 기술의 개발·이전·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 구축 방안 마련을 결정
 - o 그동안 개도국들은 지적재산권 체제의 유연성 보장, UN 총회 산하의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 등을 요구해왔음.
 -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의 역량배양을 위한 경험 공유, 남남 및 삼각협력, 민관협력 촉진을 위한 UN 기구들의 지원 촉구

4. 시사점

- 이번 Rio+20 회의는 개도국들에게 녹색경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구체적인 녹색경제 이행 로드맵 채택에 실패하였음.

-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환경관련 전문기구 창설에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
- 국제사회가 현재 처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유로존 위기 상황이 인류의 미래에 대한 정치적 결단력을 기대하기에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음.
 - o 미국 오바마 대통령, 독일 메르켈 총리, 영국 카메룬 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이번 회의에 불참하였음.
-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 공조는 여전히 필요하며 장기적인 변화를 야기하기 위한 개별 국가 차원의 양자적 접근은 지속되어야 할 것임.
- 우리나라는 녹색경제로의 이행수단으로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정책을 제안하고 녹색경제 로드맵 채택을 지지하는 등 Rio+20 선언문 도출 과정에 활발히 참여해왔음.
- 이미 우리나라는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 East Asia Climate Partnership)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해왔음.
-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개발 지원에 핵심 재원이 될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유치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다자차원의 개도국 지원 노력에도 동참하고 있음.
- 정부는 개도국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ODA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ODA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예정임.⁴⁾
 - 한국은 이른바 '녹색 ODA' 비중을 2020년까지 양자 ODA의 30%까지 확대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 o ODA 확대 목표와 더불어 계획대로 녹색 ODA 비중을 확대할 경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녹색 ODA 규모는 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그간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녹색 ODA 추진체계를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로 이관하여 운영함으로써 범부처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과 부처간 조정 및 협력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표 3. 녹색 ODA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ODA	696	802	816	1,174
양자 ODA(A)	491	539	581	901
녹색 ODA(B)	55	63	72	127
비 중(B/A)	11.3%	11.6%	12.4%	14.1%

자료: 녹색성장위원회(2012), 글로벌 녹색성장 확산을 위한 녹색 ODA 발전 방안.

4)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2012. 5).

-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모든 ODA 사업 추진시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을 범분야(cross-cutting)로 고려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함.
 - DAC는 기후변화와 개발의 통합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모든 원조사업에서 범분야(cross-cutting) 이슈로서 기후변화를 주류화(mainstreaming)할 것을 권고하였음.⁵⁾

- 2012년 종료 예정인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의 경우 대상 지역과 규모를 확대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50억 달러를 지원할 것임을 선언하였음.
 - 지난 5년간 추진된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성공요인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지원 프로그램 수립 시 교훈을 반영해야 할 것임.
 -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은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 글로벌 차원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원방식도 무상 위주에서 유상을 포함하며, MDB와의 협력 등 다양한 지원방식(modalities)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이번 Rio+20에서도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이 부각된바, 민간기업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장려해야 함.
 - 정부간 정치적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의 참여 정도에 달려 있으며, 민간의 재원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됨.
 - 국제사회에 대한 규모 확대 공약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독일의 International Climate Initiative는 배출권 경매 수익을 개도국 지원자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바, 우리나라가 2015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배출권거래제 설계 시 이를 고려해볼 수 있음.

- 과거 경제개발 과정에서 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하던 발전경험과 최근 녹색성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다양한 정책 추진 경험은 개도국 지원을 위한 콘텐츠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하드웨어 위주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원조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이전, 지식공유, 정책 컨설팅 등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시급함.
 -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경험과 경제성장 요소가 부각된 녹색성장정책은 개도국의 관심을 유도하기에 충분함.
 -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되 그 과정에서 개도국의 발전단계와 다양성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특히 정책 컨설팅의 경우 해당 지역 및 분야의 전문성에 기초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해야만 실질적으로 기여 가능함.

- 양자뿐만 아니라 다자 차원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논의와 지원 프로그램에도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 국제금융기구의 기후변화 관련 신탁기금 출연 확대⁶⁾와 GCF 설계작업 참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5) OECD/DAC(2008), *Guidance on Integrat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into Development Cooperation*.

6) 정부는 세계은행 IBRD에 4천만 달러 규모의 '녹색성장기금(Korea Green Growth Partnership Trust Fund)' 출연을 추진 중임.

-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의 경우 공여국 정부의 영향력 행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국가들이 양 자원조 보완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신탁기금 사업승인 시 우리나라 ODA 정책 및 전략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양자사업과의 시너지 창출, 해당 국제기구의 본 사업의 연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GCF 설계작업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GCF의 신속한 운영개시를 위한 논의 진전에 기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역량 배양이 필수적임. **KIEP**